

호기심으로 갈 수 없는 나라

The kingdom no one can go to with curiosity

마가복음 4:1-12

-
1.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2.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3.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 뿌릴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5.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7.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으므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8.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삼십 배나 육십 배나 백 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9.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0.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11.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12.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

1.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고,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마13:11).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호기심으로 갈 수 없는 나라’ 인데 제목에 비추어 볼 때, 무리와 제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2. 알쏭달쏭한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때 무리와 제자의 반응을 살펴봅시다(막4:10).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3. 우리도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지 생각해봅시다.
4. 참된 제자됨의 시작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봅시다.

